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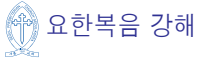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I

(요 1:4~5)

이종윤 원로목사

1. 예수님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세상의 빛’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21번 나옵니다. 창세기 1:3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혼돈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돈 속에 있던 천지가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시작된 것입니다. 빛이 오면 혼돈이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1:5에서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 (One who knows God)라는 뜻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눅 10:22)

지체의 많은 부분이 소중하지만 특히 눈의 소중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사물을 감지해도 결코 색깔을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고로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 분이십니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 (Who makes Him known)이라는 뜻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

위 요한복음 8:12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 속에서 생명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 9:5에 넘어가면 확실한 진리가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어디 가서 빛을 더 찾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빛은 태양에서부터 오는데 정작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신 것에 대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빛의 근본이 아니라 빛이 태양의 근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면 분명해 집니다. 창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면 첫째 둘째, 셋째의 처음 세 날은 준비 단계(Preparatory)입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완성의 단계(fulfillment)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일곱째 날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창조 시에서부터 태양이 빛의 근원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가 천 년인지, 만 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6천 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때로 고고학자들이 몇 억 년 전의 인간의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성경과 상당한 괴리감을 주는데 이런 괴리감들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날을 정해 주시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됩니다. 빛은 진리를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자신이 훌륭한 줄 알고, 정직한 줄 알고, 굉장한 줄 알았는데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본 거울에는 분명히 맑고 깨끗한 것으로 비쳐졌는데 예수님 앞에 비쳐보니 형편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에게 비전도 꿈도 없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실제도 볼 수 없고, 참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리하고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개중에 하나님을 모르고도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는 길은 결국 지옥입니다. 이보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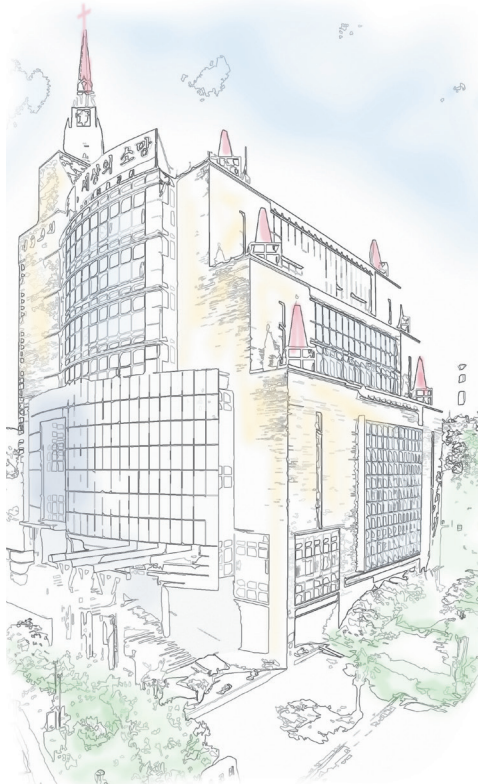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을 바라보고 찾아야겠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시 27:1),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주께서 옷을 입을 같이 빛을 입으시며”(시 104:2).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빛이 없으니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일서 1:5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 무슨 어두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모든 일이 적나라하게 폭로됩니다. 그러므로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빛을 어디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존자이십니다.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 계속)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19 홍해작전 영원한 위로(慰勞)

6월 6일(목)~6월 25일(화) 오전 5시 30분~6시
특별새벽기도회 : 6월 17일(월)~6월 22일(토) 오전 5시 ~6시
특별새벽기도회 강사 : 서창원 목사

2019년 홍해작전이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서울교회 홍해작전은 개개인 성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는 기적의 기도작전으로,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되어 27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사다.

작년 홍해작전 기간 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을 우리는 보았다.

이제 2019 홍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으므로 개인, 가정, 교회 국가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한다.

홍해작전 기간 중 주차는 카이로스 빌딩이나 은마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람이며 무료주차권은 사무국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 2019 홍해작전 일정 -

- 6월 6일(목)~6월 8일(토) 새벽 5시 30분~6시 / 서명철 목사
- 6월 10일(월)~6월 15일(토) 새벽 5시 30분~6시 / 장석남 목사
- 6월 17일(월)~6월 22일(토)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 6시 / 서창원 목사
- 6월 24일(월)~6월 25일(화) 새벽 5시 30분~6시 / 조원영 목사

- 새벽마다 기도한다 ◦ 함께 모여 기도한다 ◦ 위로받고 기도한다

 2019 홍해작전을 시작하며

우리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최형열 장로
(2019 홍해작전 부장)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우리는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놀라지 말고, 앞을 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세처럼 기도하는 홍해작전에 올해에도 힘을 다하여 참여합니다.

의인 한 명의 붕괴는 많은 의인들을 실의에 빠지게 합니다. 타력(他力)에 의해 의인이 무너질 경우, 수다한 성도들이 입을 정신적 손상은 목을 죄는 이상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사회를 위한 칭송과 존경을 받아야 할 행적이 도리어 매도되고 소외되어 비소를 받는 것은 사회 속에서 성도의 고난입니다.

밀쳐 넘어지게 한 적도 없는 이에게 자기를 휘방했다 하고, 도적질은 커녕 있는 것조차 다 갖다 바친 이에게 사기·횡령을 했다고 함은 당사자를 슬프게 한 것 뿐 아니라 하나님께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자기변명을 하며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종(노예)에겐 이름도 명예도 재산도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러 왔노라」 하시며, 자기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와 동일시 하시면서 나사렛 동리의 낭떠러지에서 조롱과 미움과 박해를 받아 떠밀침을 받는 위기에 처했을 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하며 기도와 찬양을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경우에도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송, 그것은 고난과 수렁에 빠진 성도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올해의 홍해작전에 다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서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송인수 오명걸·이수민 이영조·이영자 윤요섭·안재희
오윤걸·김민아 박동우·백승경 이관규·이순영 안홍희
무 명2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기사정정

지난 주 홍해작전 조직 중 누락 명단이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2019 홍해작전 조직

- 부장 : 최형열 장로 지도 : 장석남 목사
- 차장 : 김승록 집사
- 기획 : 김혜언 집사 / 장윤기 집사
- 예배 : 황병석 집사 / 백승갑 집사
- 찬양 : 오승민 집사 / 김영희 집사
- 동원 : 이민호 집사 / 장상국 집사
- 홍보 : 김규태 집사 / 유은경 집사
- 봉사 : 허 숙 권사 / 김선영 권사
- 차량 : 김광태 집사 / 최원석 집사
- 재정 : 김광민 집사 / 이용호 집사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1시



선교보고 - 케냐

감동과 체험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한국 순회 찬양 공연을 하
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주인공 되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영
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했던 공연이었기
에 20여 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하여 아이들에
게 큰 비전과 자신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
랑을 나누는 감동과 체험과 도전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이 부어 주시는 세
밀하고 완벽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매회 공연
때마다 새로운 경험으로 도전과 감동으로 저희를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멀리 집을 떠나 그림고 지치고 또 자신감이 없
어서 잘 웃지도 못하고 수줍어하는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환영해 주고 열광하는 박수와
앵콜과 함께하는 뜨거운 열기에 아이들의 굳은
마음과 얼굴을 녹이기에 충분한 격려가 있었고
뜨거운 내면의 그 무엇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여
회를 거듭할수록 서로를 의지하며 자신감을 가지
므로 21명의 케냐단원, 저희 부부와 반주자 또 2
명의 한국 봉사자의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하나
임을 체험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잘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수련원 가평숙소와 모든 일정 차
량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호산나대학, 한양대학
교 등 초청하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단원 20명 항공권 후원, 관광지 입장료 및
건강검진, 가방, 운동화, 옷, 모자, 우산 등 생활용
품 일체, 맛난 식사, 사진인화 등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후원하여 주신 서울교회 모든 분들께
일일이 다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밖에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엄청난 예산과 지출에도 불구하고 아마니 찬

양신학교 건축 예산의 목표액에 조금이라도 기여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제약을 받는 위치 선정과 먼 통학거리의 어려움
이 있고 이미 포화 상태의 많은 학생들을 넓은 공
간에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부지 확보와 건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하
며 준비해오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
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케냐는 지금 우기철이 지나가고 있으며 학생
들은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니콰이어 단
원들도 이제 귀국 후 잘 적응하며 구체적인 비전
을 목표로 삼고 더욱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습
니다. 장차 케냐와 아프리카를 이끌고 갈 리더들
이 되길 소망합니다.

400여 명의 아마니 방과후 음악학교 학생들
중 90여 명(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은
50~90% 아마니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고 있
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졸업생 중 2년제 아마니
찬양신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는 찬양사역자
의 비전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에서도 엘리자벳과 에릭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우
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일반대학을 갈수 있는
성적이지만 학비를 자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
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예비반 학생으로 모니
카, 수잔, 호프 또한 이 모든 아이들은 저희 아마
니 장학금으로 6~7년씩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에 이르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대학교
등록금은 저희의 선교비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
니다.

아마니 방과후 음악학교 13개 지역, 아마니 찬
양신학교, 아마니콰이어의 교육 및 구제사역과 마
사이마을 에세키 초등학교(310명) 급식사역을 위
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케냐에서 김낙형 · 오정녀선교사 올림

홍해 작전을 기다리며

6월의 꿈

신동기 권사 (12교구 / 시인)

기적을
몰고 온
6월의
초록비명이어!

허기진 영혼
홍해에 던져 놓고
울음덩어리
새벽을 부풀린다

피 문은 심장
활짝 열어
깨어지고
부서져
하얀 포말로 피어나는
6월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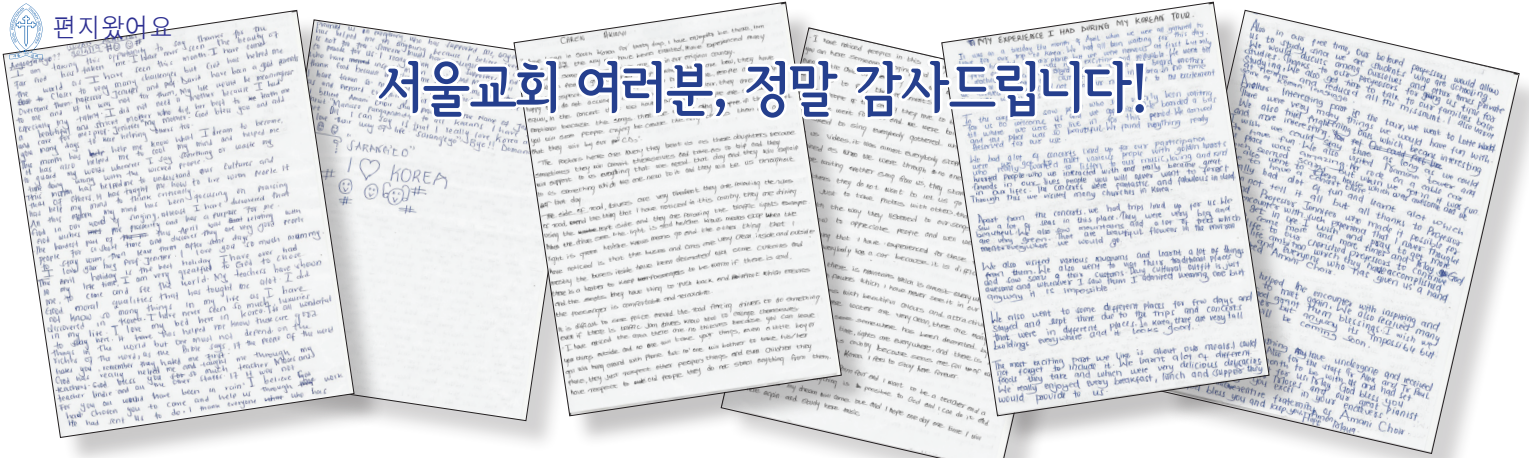
하늘이어
땅이어
서슬푸른 홍해
호령하는
새바람 불어온다

눈물로
몸서리쳐
바람벽 세워지고
말씀으로 열려지는
생명의 땅!
그곳으로



편지왔어요

서울교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돌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태껏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여러가지 시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Jennifer 교수님(오정녀 선교사)과 David 교수님(김낙형 선교사)은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셨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 그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한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름답고 저를 잘 잡아주면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껴주시는 Jennifer 교수님 '엄마'가 있었기에 엄마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날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한국방문은 제 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 또한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통해 번영하기를 바라며 저에게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4월은 제 인생에서 제일 좋

은 휴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삶에서는 여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아름다움을 여태 보지 못했습니다. 4월에 제일 힘들었던 점은 짧은 기간동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웠는데 좋은 사람들을 며칠 뒤면 떠나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때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교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두는 절망에 빠져있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선택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통해 해야 할 일을 도와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분들은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 어려움을 겪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은 것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모든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Amani 합창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성하리라 믿습니다.

한국 너무 사랑합니다!!!!

케냐에서 수잔(SUSAN)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던 케냐 아마니 콰이어의 수잔(SUSAN), 카렌(CAREN), 호프(HOPE) 학생들의 감사 편지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6.6(목) 한국예비역 기독교인연합회(여호수아회) 총회에서 설교한다.

■ 금주의 식사: 안재선 집사 문수자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림) 소고기메추리알장조림, 무우생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6월 6일(목)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되는 2019 흥해작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흥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호국의 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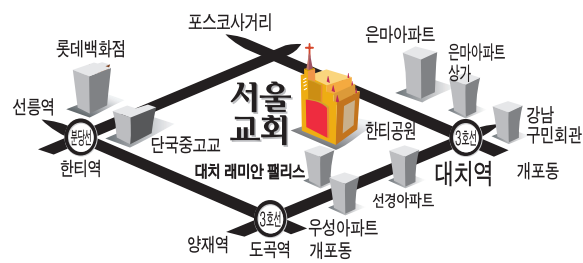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3일	월	욘 11-14		요 1-5	
6월4일	화	욘 15-18		요 6-8	
6월5일	수	욘 19-21		요 9-12	
6월6일	목	욘 22-26		요 13-17	
6월7일	금	욘 27-30		요 18-21	
6월8일	토	욘 31-33		행 1-7	
6월9일	주일	욘 34-36		행 8-11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요일예배	II부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